



4월 9일(월) 22:00 이후 사용(OECD 엠바고)

비고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담당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지원과	과장 곽상현, 전문위원 정현이 (044-200-2157, 2159)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과장 유병희, 사무관 한유빈 (044-215-8710, 8713)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과장 최순희, 사무관 최수진 (02-2100-8131, 8366)

‘17년 우리나라 ODA는 22억불, DAC 국가 중 15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 주요내용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4월 9일 현지시각 15시(한국 시간 22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29개국)들의 2017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1,450억불)대비 1.1% 증가(실질증가율 $\Delta 0.6\%$) 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다자기구 앞 기여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1.2백만불 감소한 22억불로 DAC국가 중 15위 (2016년 16위)입니다.
 - * DAC 29개국 중 14개국은 전년대비 ODA 규모 증가, 15개국은 감소
- DAC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ODA/GNI) 평균은 0.31%로 전년(0.32%)대비 0.01%p 감소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 규모 비율은 0.14%로 전년(0.16%) 대비 0.02%p 감소했습니다.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9일(현지시간 15:00, 한국시간 22:00)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2017년 ODA 확정통계는 '18년 하반기 발표예정(OECD)

-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1,450억불)대비 1.1% 소폭 증가(실질증가율 $\Delta 0.6%$)했고,
-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ODA/GNI) 평균은 0.31%로 전년 (0.32%)대비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GNI) 영국 0.7%, 독일 0.66%, 미국 0.18%, 일본 0.23% 등

- 국가별로는 DAC 총 29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ODA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 규모가 크게 감소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전년 대비 공여국내 난민비용 감소, 호주 등은 다자간 원조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2017년 원조규모는 2016년(225억불)에 비해 1.8% 감소(실질증가율 $\Delta 6.5%$)한 22억불이며, DAC회원국 중 15위(2016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 전년 대비 양자간 원조는 증가(4.5%, 16.2억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ODA 실적이 감소한 것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자금 납부 계획상 2017년에는 1회만 납부(2016년에는 2회 납부) 하는 등 다자간 원조가 큰 폭으로 감소($\Delta 15.9%$, 5.9억불)했기 때문입니다.

-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2%p 감소한 0.14%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나라 ODA / GNI(%) 추이: ('15) 0.14 → ('16) 0.16 → ('17) 0.14

[2] 2017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7년 우리나라 ODA는 양자원조 16.2억불(73%), 다자원조 5.9억불(27%)로 구성되었습니다.

< 2017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순지출 기준, 백만불)>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율(%)	비중(%)
▪ ODA (A+B)	2,246	2,205	△1.8	100.0
- 양자간 ODA (A)	1,548	1,618	4.5	73.4
무상원조(KOICA 등)	985	1,035	5.1	(64.0)
유상원조(EDCF)	563	583	3.4	(36.0)
- 다자간 ODA (B)	698	587	△15.9	26.6
▪ ODA/GNI(%)	0.16	0.14	-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0.4억불(전년대비 5.1% 증가)이며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5.8억불(전년대비 3.4%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50.2%, 아프리카 24.4%, 중남미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분야별로는 보건(386백만불), 교육(227백만불) 등 사회 인프라와 교통 및 물류(832백만불), 에너지(115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5.9억불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 세계은행(△1.11백만불), 지역개발은행(△102.41백만불)*, 기타 다자기구(△8.61백만불)에 대한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 * AIIB 출자금은 '16~'19년까지 5차례 분할납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16년 2차례, '17~'19년 매년 1차례씩) '17년 출자금이 '16년 대비 1.5억불 감소

첨부

2017년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잠정)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국 가	2017년도(잠정)		2016년도(확정)		증감율(%)	
	ODA	ODA/GNI	ODA	ODA/GNI	명목	실질 ^{주)}
미국	35,261	0.18	34,412	0.19	2.5	0.7
독일	24,681	0.66	24,736	0.7	-0.2	-3.6
영국	17,940	0.7	18,053	0.7	-0.6	2.1
일본	11,475	0.23	10,417	0.2	10.2	13.9
프랑스	11,363	0.43	9,622	0.38	18.1	14.9
이탈리아	5,734	0.29	5,087	0.27	12.7	10.2
스웨덴	5,512	1.01	4,894	0.94	12.6	9.9
네덜란드	4,955	0.6	4,966	0.65	-0.2	-2.9
캐나다	4,277	0.26	3,930	0.26	8.8	4.1
노르웨이	4,123	0.99	4,380	1.12	-5.9	-10
스위스	3,097	0.46	3,582	0.53	-13.5	-13.9
호주	2,957	0.23	3,278	0.27	-9.8	-15.8
스페인	2,415	0.19	4,278	0.35	-43.5	-45
덴마크	2,401	0.72	2,369	0.75	1.4	-2.3
대한민국	2,205	0.14	2,246	0.16	-1.8	-6.5
벨기에	2,204	0.45	2,300	0.5	-4.2	-8.2
오스트리아	1,230	0.3	1,635	0.42	-24.8	-27.4
핀란드	1,054	0.41	1,060	0.44	-0.6	-3.3
아일랜드	808	0.3	803	0.32	0.6	-2.4
폴란드	674	0.13	663	0.15	1.7	-4
뉴질랜드	436	0.23	447	0.25	-2.5	-6.7
룩셈부르크	424	1.00	391	1.00	8.4	4.4
포르투갈	378	0.18	343	0.17	10.2	6.9
그리스	317	0.16	369	0.19	-14.1	-15.8
체코	272	0.13	260	0.14	4.6	-0.8
헝가리	149	0.11	199	0.17	-25.1	-29.7
슬로바키아	113	0.12	106	0.12	6.6	3.5
슬로베니아	76	0.16	81	0.19	-6.2	-10
아이슬란드	69	0.29	59	0.28	16.9	5.5
합 계	146,600	0.31	144,965	0.32	1.1	-0.6

주) 실질증감율: 순지출 기준 명목금액 변동 중 물가와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수치